

입는 기기·생체인식… 내년엔 더욱더 스마트하게

배터리 발열문제 약점… 건강관리기능은 각광 예상

홍채·얼굴 인식 보안체계 강화… 무선충전 상용화

올해 손목에 차는 스마트 시계가 나왔다면 내년엔 입는 스마트 기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자업계는 올해의 스마트 기기의 주요 흐름이 내년에 더욱 가속·발전할 것이라고 25일 내다봤다. 입는 스마트 기기(wearable device)의 종류와 활용성이 다양해지고, 생체인식을 이용해 더욱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이용이 가능해지며, 무선충전 기술도 더욱 발전해 전원 걱정이 없는 스마트 기기 생활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입는 스마트기기 다양해진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손목시계 갤럭시 기어는 완전 충전 시 사용시간이 25시간에 불과해 불편하다는 논란 속에서도 지난달까지 세계 시장에서 80만대 이상 팔렸다. 최소한 이 제품이 입는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구글이 내놓았던 스마트 안경인 구글 글래스도 아직 보급용 제품이나 오지는 않았지만 세계적인 화제를 낳으며 앞으로 관련 제품의 대중화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플도 내년에 아이워치라는 이름의 스마트 손목시계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내놓고 있고, 이미 제품을 내놓은 소니도 업그레이

드한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입는 스마트 기기는 배터리와 발열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고, 디자인이 다소 투박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이 되면 배터리와 발열 문제의 '주범'인 화면(디스플레이 패널)을 고민해 없애거나 혁신적인 화면을 장착한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입고 다니는 기기의 특성상 맥박이나 피부 온도, 운동량 등을 측정해 건강관리 기능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문 이어 홍채·얼굴인식까지= 팬택이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최초로 지문인식 기능을 탑재한 베가 시크릿 노트를 출시한 데 이어 애플도 아이폰5s에 지문인식 기능을 넣으면서 생체인식 기능이 새삼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문인식 기능은 비밀번호나 패턴 입력 방식과 겹쳐 사용이 더 편리하면서도 보안 측면에서는 더욱 안전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홍채인식 기능 관련 특허출원 사실이 최근 알려졌고, 애플은 얼굴인식 특허를 등록했으며, 영상인식 감지기(센서)를 만드는 회사가 최근 인수하는 등 다른 생체인식



삼성전자가 최근 이탈리아 코르티나에 문을 연 '갤럭시 스튜디오 스키 리조트'를 찾은 방문객들이 갤럭시 노트3와 갤럭시 기어를 체험하고 있다.

기술도입도 접혀지는 상황이다.

무선 충전 기술도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상용화 한 무선 충전 기술은 충전기에 정확히 없어놓아야만 충전이 되는 자기유도 방식이었으나, 충전기와 스마트폰이 다소 떨어져도 충전할 수 있는 공진 방식의 무선충전도 상용화가 머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홍채인식 기능 관련 특허출원 사실이 최근 알려졌고, 애플은 얼굴인식 특허를 등록했으며, 영상인식 감지기(센서)를 만드는 회사가 최근 인수하는 등 다른 생체인식

조과부 국립전파연구원이 24일 전파용설비의 기술 기준을 개정하면서 공진 방식 무선충전 기술이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서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기능 강화 바람도 거칠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이 아이폰5s에서 내놓은 64비트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장착한 스마트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삼성전자는 갤럭시S5에 64비트 AP를 탑재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64비트 AP는 4GB(기가바이트) 이

상의 고용량 메모리를 인식할 수 있어 스마트폰의 연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당장 삼성전자는 내년 전자제품·통신제품 전시회인 CES나 MWC 등

에서 대화면 태블릿PC인 '갤럭시 노트 프로'를 공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외신 등을 통해 전해진 상황이다.

갤럭시 노트 프로는 10인치대에 멀티터치 태블릿PC의 화면 크기를 12.2인치로 늘린 제품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PC타고 스마트폰 감염… 신종 악성코드 주의보

안드로이드 기기만 침투… 정보 유출·전화 문자 차단

PC에 연결된 스마트폰을 감염시키는 신종 악성코드가 발견돼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이스트소프트에 따르면 이번

에 발견된 악성코드는 운영체제(OS)

가 취약한 PC를 타고 안드로이드 스

마트폰에 침투해 각종 정보를 빼낸다.

최신 보안패치가 설치되지 않은

PC 사용자가 해킹에 의해 가짜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악성코드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Drive-By-Download) 방식으로 해당 PC를 1차 감염

시킨다. 이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이 감염된 PC와 연결되면 악성코드는 사용자·동의 없이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강제로 설치하는 2차 감염 작업을 진행한다.

이 악성앱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유출하고 수신되는 전화와 문자도 차단한다. 또 스마트폰에 설치된 일부 인터넷 백그라운드 앱을 가짜 백그라운드 앱으로 대체하고 사용자가 허위 백그라운드 앱에 입력한 각종 금융관련 정보를 탈취하기도 한다.

이번 악성코드는 'USB 디버깅 모드'

가 설정된 안드로이드 기기에만

침투하기 때문에 일반 스마트폰 사용

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지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PC와 화드로이드 스마트폰 연결이 잘되지 않으면 그 해결책으로 'USB 디버깅 모드'를 활성화하도록

내내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보다 많은 수의 사용자들이 이번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이스트소프트 측은 설명했다.

'USB 디버깅 모드'의 활성화 여부

를 알려면 환경설정→더보기→시스템판리자→개발자 옵션→USB 디버깅 체크박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스트소프트는 현재 '알약 PC 전자'와 '알약 안드로이드'에서 이 악성

앱을 탑재하고 있으며 발견 즉시 보

안 DB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 | 062) 651-6581
의 | 010-3690-7790

나주 혁신도시·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근생용지/점포주택지/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제주행 여객선에 2배 빠른 LTE

KT, 목포·완도·장흥 등 7개 항로 서비스

목포·완도·장흥 등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에 2배 빠른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가 제공된다.

KT는 남해안에서도 LTE 속도가 2배 향상돼 전 해상에서 고품질 LTE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KT는 목포·해남·완도·고흥·장흥·부산 등 7개 지역에서 제주를 연결하는 12개 정기 여객선에 2배 빠른 LTE를 상용 구축, 고객의 체감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여객선마다 LTE 기지국과 해상 전용 안테나를 설치함으로써 LTE 다운로드 속도가 기존보다 62% 이상 개선됐으며 전송 성공률도 최대 90% 향상됐다.

특히 완도~제주 여객선 내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는 200% 이상, 해남~제주간 여객선에서의 전송 성공률은 250%까지 개선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연간 3만명의 승객들은 더 빠른 속도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해상로는 넓은 커버리지와 지형 특성에 따른 전파간섭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다.

KT는 동해 연안에 LTE 해상 커버리지를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서해 5도 해안 인근, 울릉도, 독도 등지에서 LTE 품질 개선 작업을 마쳤다.

/박정욱기자 jwpark@

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중독예방 가이드북 배포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겨울방학 기간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가이드북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의 대상별 맞춤형 3종으로, 스스로 목적에 맞게 가치있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한 실천 목표를 세우고 사용조절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중독 위험에 대

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중독 대응센터(상담대표전화 1599-0075) 안내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수록해 학부모 및 청소년들이 손쉽게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건강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가이드북'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홈페이지(ipac.or.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방통심의위, '원스톱 인터넷 피해 구제 센터' 개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서울 방송话관에 '원스톱 인터넷 피해 구제 센터'를 개소했다. 원스톱 인터넷 피해구제센터는 악성 게시물 등으로

인한 인터넷상 권리침해 피해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돋는 역할을 한다. 전화(☎1377) 한 통으로 민원 신청과 상담을 해결할 수 있다.

국내 대·중소기업 간 정보통신기기(ICT) 격차가 점점 벌어져 중소기업의 ICT 활용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5일 '대·중소기업 간 ICT 격차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보화 트렌드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에 첨단 ICT 채택·활용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은 2011년 78.6%에서 지난해 79.9%로 소폭 올랐지만, 대·중소기업 간 IT 활용 격차는 같은 기간 26.5점에서 32.6점으로 크게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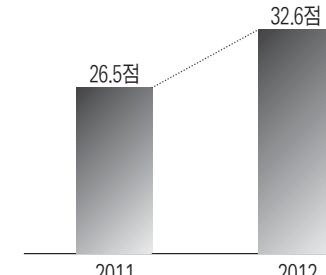
이어 중소기업의 ICT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첨단 ICT 구축비 용자 지원 ▲중소기업의 첨단 ICT 역량 강화 ▲빅데이터 기반 공동 플랫폼 구축 ▲첨단 ICT 기반 중소기업 마케팅 채널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외국 중소기업은 올해 첨단 ICT 도입률이 40%를 웃돌았다.

중기연은 "개별 중소기업에 최소

대·중소기업간 ICT 격차 심화

정부 지원정책 시급



한국 대·중소기업 간 정보통신기기(ICT) 격차가 점점 벌어져 중소기업의 ICT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5일 '대·중소기업 간 ICT 격차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보화 트렌드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에 첨단 ICT 채택·활용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은 2011년 78.6%에서 지난해 79.9%로 소폭 올랐지만, 대·중소기업 간 IT 활용 격차는 같은 기간 26.5점에서 32.6점으로 크게 벌어졌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지난해 말 기준 스마트·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ICT 도입률은 10% 미만으로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국 중소기업은 올해 첨단 ICT 도입률이 40%를 웃돌았다.

중기연은 "개별 중소기업에 최소

사무실 1,2층
높이 8m
호이스트 3톤 2대
전기 200kw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선운공인중개사 010-2475-0933

010-5166-0013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번 4거리 코너)

토지 3,305m²

건물 1,300m²